

[보도자료] 쿠팡, 덕평물류센터 관련 고객안내문 뉴스룸 게재

2020. 6. 24.

2020. 06. 24. 서울 – 쿠팡은 금일 덕평 물류센터 폐쇄와 관련하여 자사 뉴스룸을 통해 고객 안내문을 발표했다.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덕평 물류센터 출고 파트 담당자로 23일 마지막으로 근무(23일 03:45 퇴근)했으며, 23일 검사 후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쿠팡은 전직원에게 대해 하루 2회 이상 발열체크 및 그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근무기간 중 체온 측정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으며, 건강상태 문진 결과에서도 해당 직원은 이상 증상이 없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쿠팡은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자 통보를 받은 즉시 덕평 물류센터 폐쇄 조치를 시행하고,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문자와 구두 통보를 통해 귀가 조치했다.

쿠팡은 그동안 철저한 거리두기 및 방역 활동을 통해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전 물류센터에서 대규모로 안전 감시단을 채용해 거리두기 및 정기적인 체온 체크, 마스크 및 장갑 착용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했다. 통근 버스 및 출퇴근 시 QR코드로 체크해 코로나 의심자 발생 시 신속하게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쿠팡의 전 시설을 매일 방역하고 있으며, 고객 안심을 위해 로켓배송 전 상품을 소독해 배송을 완료한다.

쿠팡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물류센터 근무자들의 안전과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직원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